컨버전스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글_박동순 동서대학교 총장

DMB(Digital Media Broadcasting), IPTV, WCDMA,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 텔레매틱스…. 2005년 새해가 되면서 신문이나 방송의 생소한 통신 관련 용어들이 자주 등장했다. 그 동안 피상적으로 느껴졌던 유비쿼터스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컨버전스 기술로, 정보통신·방송·컴퓨터·콘텐츠·금융·자동차·가전 등 그동안 독립적이었던 산업·기술 영역들이 IT기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엮이면서 다양한 형태의 융합·복합 서비스를 쏟아낸다는 것이다.

향후 유비쿼터스 시장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시점에서 제공될 여러 기술 중 와이브로와 지상파 DMB가 가장 적합하다. 우선 가장 가슴을 설레게 하는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는 DMB다. DMB는 단순히 통신과 방송 융합의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의 엔터테인먼트 생활 패턴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와이브로는 1~2Mbps의 전송 속도로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정지 및 이동 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초고속 유선인터넷 수준의 전송속도를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와이브로 서비스의 최대 강점으로 차세대 서비스로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컨버전스 서비스들이 올해 대거 등장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변수가 많다. 기술의 발전속도만큼 지원제도, 정책 등이 뒷받침을 하지 못해서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인 연구개발과 사업이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각종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로 정부부처간의 대립은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은 아직도 낡은 법규나 관습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

컨버전스는 곧 상생을 의미한다. 컨버전스 시대에는 관련 산업계와 관련 행정기관 등도 서로 융합해 상호간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컨버전스 시대에는 내재된 이해의 갈등, 문화의 충돌 등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성공의 핵심요인이다. 컨버전스는 정보통신의 인프라와 역량을 타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상호간에 노력해야 한다. 세계적인 IT강국의 위상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구성원들이 상생의 원칙에 따라 서로 협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컨버전스 서비스들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해왔지만 보이지 않는 실패사례도 많이 있다. 이러한 컨버전스 서비스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컨버전스 서비스들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볼 때 새로운 서비스의 성공 여부는 킬러 애플리케이션 또는 킬러 콘텐츠라고 불리는 콘텐츠를 개발했는가에 좌우된다. 새로운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차별화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또는 콘텐츠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DMB, 와이브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이동하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급선무다. 기존 유선인터넷 기반의 콘텐츠를 단순히 무선으로 옮기는 데 그친다면 DMB, 와이브로의 성공 여부도 확신하기 어렵다.

성공하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많은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에서 설계되고 서비스되고 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하는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시각과 접근방식은 조속히 소비자 자율참여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컨버전스 시대에 기본 전제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구축해야 한다. 컨버전스 아키텍처의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컨버전스 서비스에 획기적인 유연성과 융통성을 제공한다. 개방형 네트워크와 정보기기의 컴포넌트화가 진전되면서, 컨버전스 기반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수요자가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급하는데 관심을 보이게 됨으로써 정보의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사업자 통신망은 인프라적 성격으로 전환될 것이다.